

**서론: ‘사람’이 묻고 ‘사랑’이 대답하다.**

**0. 사랑으로 걸어온 지난 시간...**

**본론: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통해 알아본 교회의 특징**

**1.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 교회**

 **1)바나바**

 (우리말 성경)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36)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사도행전 14:14)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도행전 11:22-24)

**2.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1)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Niger) "어두운, 검은”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즉,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는 소외되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를 구성하는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ex)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황당한 듯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요한복음 4:9)

위의 구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해 온 관습에서 비롯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안디옥 교회에서 흑인이었던 시므온이 교회의 리더십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영적 성숙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일예배 설교노트 설교자: 김영목 목사**

**“하나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 **사도행전 13장 1-3절**

**2)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리비아의 대 도시이며 아프리카의 북쪽 지방에 위치한 도시 입니다.

영국이 낳은 설교의 황태자,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 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의 주장에 동의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국적의 차별이 없다는 진리를 받아 들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였습니다.

 **3)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란 말은, 두 사람이 부모는 다르지만 같은 유모로부터 젖을 먹고 자랐을 경우 그 둘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마나엔이란 이름의 히브리어식 이름은 ‘므나헴’이며 그 이름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왕의 이름입니다(열왕기하15:14). 따라서 마나엔은 왕족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가진 왕족이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3. 복음으로 죄인을 용서한 교회**

 **1) 사울 ( = 사도 바울)**

성경은 이름을 배열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장자 혹은 저자가 볼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ex. 제자들 이름 가운데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온다.) 본문 말씀1절에서 바울의 이름은 5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다. 그러나 13절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 13:2)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사도행전 13:7)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13)

사울은 나중 된 자였으나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누가복음 13:30 참고).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전에 사울이 지은 죄들이 완전하게 용서받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하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제1차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결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가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듯이, 코너스톤 교회도 앞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